

의사소통 매체로서의 현대장신구 연구

A research on contemporary jewelry as a medium of communication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과

문주희

2013

차례

I. 머리말

II. 몸통말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3. 작품설명

III. 꼬리말

IV. 참고 문헌

주제어

소통, 장신구, 상감기법

I. 머리말

나의 논문은 평상시 이철수 작가의 목판화를 접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목판화에 담겨있는 작가의 삶과 정신세계가 마치 나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여는 듯 새로우면서도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다. 작가와 대중과의 소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출발 삼아 논문의 주제를 작품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으로 정하였다. 이어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여러 공예품들의 하나로 대중과 좀 더 친근하면서도 진실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신구 형태에 대해 연구 방향을 정했다.

II. 몸통말

1. 연구 배경 -소통의 중요성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은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뜻한다. 쉽게 말해 나와 다른 이가 소통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나 뜻하는 바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은 무리가 동감 또는 공감하고 있을 때 소통은 이루어진다. 결국 소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소통할 화제나 거리의 가치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것인가에 따른 것이다. 아무리 소통하는 방법이나 도구가 훌륭해도 개인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무의미하게 와 닿는다면 정보의 전달도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는 소통이라 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컴퓨터 웹상에서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가 하나 둘 형성되면서부터 어디서나 인적 네트워크와 소통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고, 소통의 열풍이 시작되었다. 그 후 많은 소셜 네트워크라는 서비스와 함께 사람들은 소통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함께 하자, 나누자, 이야기 하자, 공유하자 등등... 사람들은 점점 무언가 같이 하는 것, 알려주는 것을 소통이라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다. 점차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 등 많은 소통의 도구들이 발전되었으며 실제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혼자만의 생각과 정보를 틀에 맞게 보여주며 그것이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자만의 세상에서 혼자만의 생각을 표현하며 스스로를 독방에 가두어 두고 있다.

소통을 말하면서 소통하지 않는 현대 사회. 소통의 부재에서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시작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소통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서 예술행위를 하는 것은 훌륭한 예술이 아니다.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품을 만들어야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예술이며 그런 사람이야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 훌륭한 예술인인 것이다.

한 예술가는 “예술은 삶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은 삶 속에서 직위를 보장받게 된다고 말한다.(도롱이집 이주 프로젝트 이야기 발췌) 예술 그 안에 진정성이 살아있고 그것이 소통된다면 비록 삶 속에서 최하위

직위의 예술가라도 최상의 가치를 지닌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꽃의 패러디 - 오규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나에게로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내게로 와서
풀, 꽃, 시멘트, 길, 담배꽂초, 아스피린, 아달린이 아닌
금잔화, 작약, 포인세치아, 개밥풀, 인동, 황국 등등의
보통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우리들은 모두
명명하고 싶어 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리고 그는 그대로 의미의 틀이 완성되면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

이 시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인 '꽃'의 의미를 작가 특유의 표현으로 현대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시처럼 장신구 또한 대중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작품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만약 장신구 작가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또는 특별한 내용을 담아 장신구를 만들었는데 착용하는 주체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작가의 의도나 뜻과는 달리 착용하였다면 이는 소통에 실패한 것이고 작품이 아닌 한낱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된다.

Otto Kunzli는 개념미술의 영향을 받아 그를 토대로 철학과 역사에 자신의 생각을 장신구 안에 표현한 세계적인 현대장신구 작가이다. 작가의 작품 중 “Gold Makes You Blind” (1980)은 검은 고무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에는 순금으로 만든 반지가 들어있다. 여기서 작가가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바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순금은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이 때 착용자가 지적유혹을 추구하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무시하여 고무외피를 벗겨서 착용한다면 이는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일지언정 한낱 순금반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Gold Makes You Blind 1980

Photo Credit: Eva Heyd

2. 연구방법

이철수 작가의 목판화를 보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금속에 절상감, 투각 기법을 이용하여 재해석 하였다.

절상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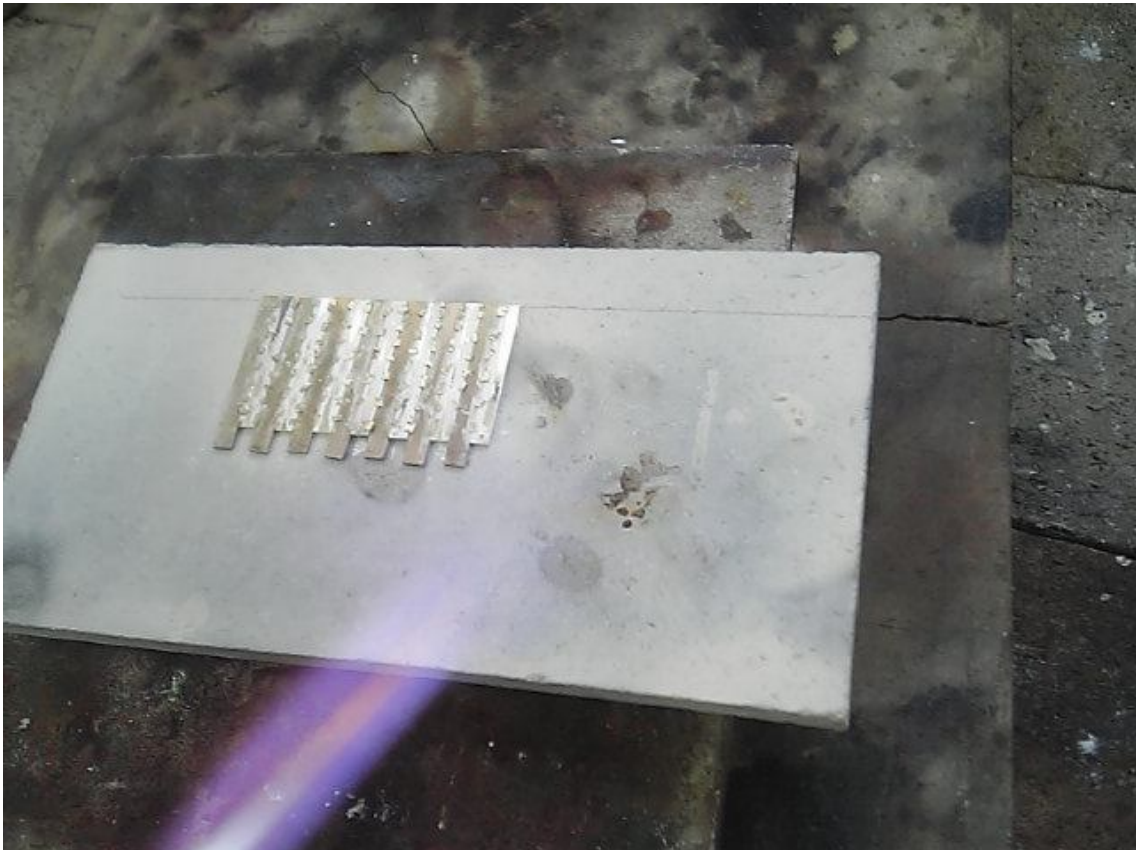
다른 종류의 금속을 동일한 평면위에서 땀하여 접합시키므로 하나의 평면위에서 2~3가지의 색상의 효과를 보기 위한 기법이다. 이 기법은 주로 장신구 제작 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상감기법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른 제작기법 및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기법은 동, 은, 금 등의 모든 종류의 금속에 가능하며 1~2밀리 이상의 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너무 얇은 금속은 열을 받으면 휘어지며 취약한 단점이 있다.
- ② 이 때 주의 할 것은 줄질과 페퍼작업 및 광내기 작업(buffing)후에는 금속이 처음보다 얇아지는 것이다.
- ③ 실톱으로 원하는 형태를 자른다. 고운 줄로 다듬어 준다. 정확하게 맞도록 주의 한다. 정확히 맞지 않으면 땀할 부분의 틈새가 벌어져 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④ 평평한 판에 놓고 각각의 금속을 정확히 맞춘 후 봉사를 각각의 땀할 부분에 골고루 칠하여 준다. 강땀을 먼저 사용하며 점점 %가 낮은 땀을 사용한다. 이 때 불을 순간적으로 땀이 흐르도록 불꽃조절을 잘하여야 한다. 산처리, 수세(水洗)를 수시로 하면서 땀을 한다. 이 때 땀이 판에 흐른 것은 후에 줄질을 하여 제거하면 된다.
- ⑤ 정확히 판과 판이 맞지 않아서 틈새가 벌어져 있으면 서로 정확히 맞도록 망치로 쳐서 맞춘다. 이 때 가능하면 땀이 흐른 곳의 판은 쳐주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땀이 금속판으로 파고 들어가 상감이 되는 형식이 되어서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⑥ 완성된 작품을 약간 돔(Dome)형으로 만들어서 땀이 없어 질 때까지 줄질을 하고 사포 작업을 한다. 완전히 땀이 없어지면 원하는 형태로 평평히 하거나 돔형으로 만들어 준다.
- ⑦ 원하는 대로 표면처리를 한다.

이에 따른 작업 시 유의사항을 요약하면

- ① 작업하고자하는 금속들은 항상 깨끗이 마무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 ② 각각의 금속의 이음새는 정확히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땀이 흐른 금속판은 가능하면 망치질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④ 땀은 강땀, 중간땀, 약땀의 순서로 한다.
- ⑤ 너무 강한 불꽃을 사용치 말고 작고 강한 불꽃을 사용한다. 불꽃이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⑥ 봉사는 틈새 골고루 칠하여 주며 땀은 작은 것을 사용한다.



작업 방법

금속을 잘라 붓으로 봉사를 바른 뒤 내화벽돌 위에 얹는다.(가지런하게 하려면 내화벽돌 위에 연필로 줄을 그어도 좋다.) 땀을 올려 땀할 준비를 한다.불을 공작품이 아닌 내화벽돌에 먼저 쬐므로써 내화벽돌부터 가열한 다음 (열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봉사와 땀이 가라앉으면 공작물에 불을 서서히 주어 땀질한다.

Marriage of metal의 여러 가지 예



3. 작품설명

이철수는 내가 좋아하는 목판화가이다. 그는 사회에 보내는 저항의 언어들로, 서정적이면서도 격렬한 선묘판화작업을 시작으로 지금은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시정이 넘치는 짧은 글이 어울어진 판화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시와 글씨와 그림이 한 화면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전통적 회화를 현대적 판화로 되살린 점에서 높이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삶이 곧 그림이라서 따뜻하고 깊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만 작품 속에 아름다움이 채워질 수 있다는 그 작가의 철학이 대중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세상과 일상사를 관조하면서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찾고, 다채로운 자연을 소재로 삼아서 그 안에 깃들어 사는 인간의 면목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이철수 작가는 대중에게 판화작품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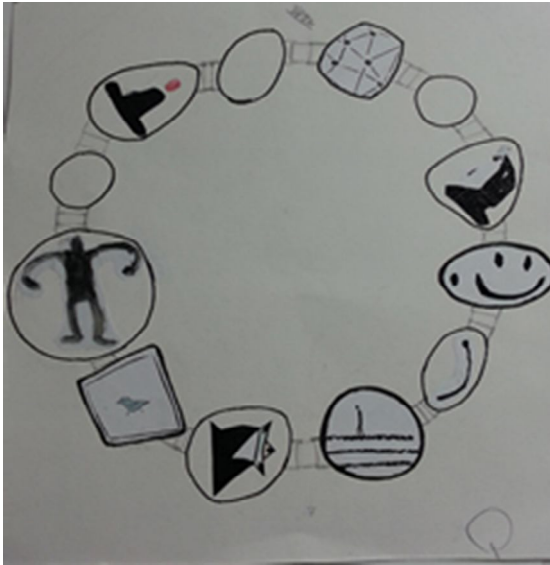
평상시에 내가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이철수 작가가 판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때론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통쾌함과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철수 작가의 작품이 최소한 나 한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임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작품이고 소통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철수 작가를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동안 밖으로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하나 둘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이야기들과 감정들이 진실성 있게 표현된다면 소통의 가능성은 표현방법에 따라 저절로 생길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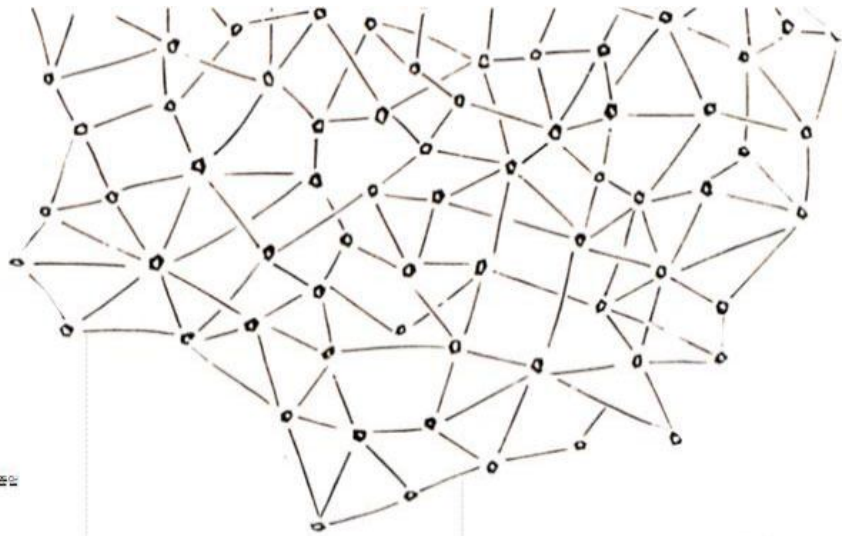
첫 걸음으로 내가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몸소 깨달은 소통의 중요성을 작품에 그대로 표

현해보고자 이철수 작가와 내가 판화작품을 통해 소통했던 그 과정을 장신구로 제작해보았다. 이 장신구를 착용할 사람이 나와 소통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작품은 팬던트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앞면에는 이철수 작가의 그림을 넣고 뒷면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그림과 글귀를 넣었다. 이와 더불어 나만의 장신구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만든 것은 언제든지 편하게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게 연결 장치를 통해 길이와 순서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하여 목걸이 혹은 팔찌로 표현하여 착용자의 기분 따라 분위기에 따라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작품 자체만 아니라 연결 장치 또한 작은 의미에서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철수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문주희 Moon Juhee

Tel. 010 9027 9279
E-mail daljuhee@gmail.com

2011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입학
2010 국민대학교 주일민디자이너센터 수료
2004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응용미술학과 졸업

수상 및 전시

2010 안암미술협회 회원 입선
2010 Egg Breaking 전시

소통

2013. 10.2 (수) ~10.8 (화)

Opening: 2013.10.2 오후 6:00

ganartspace

서울특별시 중구 광운로 119번지
가나아트 스페이스 (주) 110-300
Tel. +82-2-734-1333
Fax. +82-2-739-1334



소통

이철수 작가의 목판화를 통해 그의 삶과 철학을 느낀다.
그의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이 나의 신경을 자극하고,
그의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말투가 나의 귀와 머리를 열고
이 마음속에 강렬하게 와 닿는 순간 그와 나는 어드레 '우리가' 되어있다.

이철수 작가와 나, 곧 '우리가' 나는 소통의 그림을 창신구라는 스케치북 위에 나만의 색깔로 그려보았다.
이를 통해 또 다른 '우리가' 태어나길 바라면서...



III. 꼬리말

현대 사회는 말, 텍스트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매체가 다양해졌다. 그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특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정작 정확한 의사소통과 감정을 나누는 소통에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보화 세상에서 획일화된 방법에 맞춰 의견을 개제하고 이를 읽어 내는 또는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 간 표면적인 소통은 되는 것 같으나 실질적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여러 면에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결국 병들어 갈 것이다.

나는 예술가이기 전에 대중과 편안히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금속공예가가 되고자 한다. 이번 작품을 통해 진정 소통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였다면 다음 작품에는 평소에 내가 내안에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싶다. 이야기 내용과 맞는 표현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작품을 제작하고 싶다.

IV 참고문헌

이완근 이학준의 희망의 문학에서- <http://www.seelotus.com>

<http://ganoksin.com/blog/noel/2010/09/17/the-four-fs-ok-three-fs-and-a-c/>

<http://sjn-metal-work.blogspot.kr/>

<http://ilenekay.blogspot.kr/2010/04/metal-inlay.html>